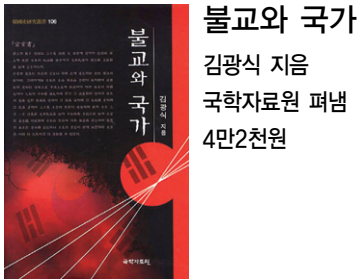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사 속 '한국불교와 국가' 탐구



불교와 국가
김광식 지음
국학자료원 펴냄
4만2천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불교의 고뇌, 의식, 이념, 행보, 흐름, 운동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개별 논문으로 정리했다. 불교의 항일운동에서부터 10·27법난의 사회사까지 상세하게 파헤치고 있으며, 불교의 존립과 성쇠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근교구 법사들이 동학동 현충원을 찾아 근교포 현장에서 산화한 선배 법사를 찾아 넋을 기리고 있다.

‘항일’부터 10·27까지 상세히 고찰

불교의 정체성 다양해지면서

국가와의 관계도 다양해져

전통과 이념 하에서 불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한국불교의 전통은 불교가 삼국 시대에 전래된 이래 170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런 역사 속에서 호국불교, 국가불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호국불교나 국가불교의 개념을 설명하는 논리는 많았지만, 정작 그를 입증하는 연구 성과는 편향적, 제한적이었다. 책은 근현대 공간에서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 결과 호국불교, 민족불교, 국가불교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는 사실, 설명, 개념, 구도를 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통을 갖고 있던 한국불교는 근대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 일제의 국권

강탈로 인해 불교가 존립하는 공간(국가)의 상실과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야기된 불교전통의 변질이었다. 그리고 산중불교에서 도회지 불교로 나오면서 불교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불교노선은 혼미 그 자체였다. 또한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으면서 유입된 개신교의 등장도 불교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불교인들은 불교의 재건 및 혁신을 기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회복, 보존시키기 위해 활동했다. 이를 민족불교라 부를 수 있다. 그 기간에 일부 불교도들은 ‘진일’ 행적을 보였지만 3·1운동 참여, 의용승군 조직, 승려독립선언서 배포, 군자금 제공, 만담결사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불교에 저항한 선학원 및 대각교 중심의 전통불교 수호 활동도 치열했다. 하지만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위상, 성격은 모호했다. 이는 불교 민족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발굴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책은 불교인들이 민족운동선상에서 갖고 있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불교와 국가 간의 관점

에서 소통을 시도하여 설명했다. 즉 그간 불교독립 운동 연구의 낙후성, 편향성을 극복하게 했다. 이로써 불교 지성인의 현실의식에서 민족의식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이후 한국불교는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우선 일제 식민지 불교의 청산을 기하면서 불교 정체성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와 경쟁을 하면서 불교 노선을 고민했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미군정, 제1공화국의 종교정책하에서의 활동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1950~1970년대 정치노선의 보수화, 산업화라는 사회변동에 즈음하여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불교 노선을 고민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념이 수행 불교, 평화불교, 호국불교, 민족불교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교의 탄압을 상징하는 10·27법난 극복이라는 자각 및 사회 민주화의 영향이라는 흐름하에서 불교는 질적으로 변화했다. 이때부터 불교계에서는 불교내부의 모순을 개혁하면서 사회 민주화에 동참하기 위한 노선으로 민족불교, 대중불교, 참여불교, 개혁불교, NGO불교가 표방되었다. 이렇듯 불교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변질되면서 국가권력과 대립, 저항관계가 표면화되었다. 이런 행보는 한국불교사에서 특이한 사례다. 이와 같이 근현대 공간에서 불교와 국가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내용은 이종성, 다면성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불교의 존립, 성쇠에 있어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다. 책은 근대기 일제 식민지하의 기간, 해방공간, 산업화 및 민주화 공간에서 전개된 그 현상을 입체적,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에 의거 최근 불교와 국가 간의 관계, 구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마음의 평화가 건강 좌우

하날 때 5분 멘토

정윤규 지음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2천원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음의 평화이다. 결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책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유익한 힐링 주제를 한데 모아 놓은 힐링 백과사전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한 잔의 술이 좋다. 그 한 잔의 술처럼, 좋은 글도 읽으면 시름을 잊고 마음을 달래준다. 그러나 한 잔의 술, 좋은 글이 지속되면 효과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책은 심리학적 지식과 예리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마음이 성장하고 인식이 확장되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즉, 책은 지속 가능한 효과를 준다.

“고양이는 살아남았지만, 강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 아무리 강해도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호랑이처럼 도태된다.”

책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및 코티솔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과 혈압을 올려 인체가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나중에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책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제8장 명상수련>이 중요한데 책은 ‘자율과도 수련: 세포를 춤추게 하라’를 잠자리에 누워 실천해보라고 한다. 파동단계를 전진시키기 전이라도 숙면을 돕고, 수면 중 무의식에서 세포가 파동하는 의념을 통해 부정적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고 몸의 정기가 잘 갈무리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충만해진다고 말한다.

책은 제1장-마음다스리기, 제2장-웃음치료, 제3장-지혜가 선사하는 힐링, 제4장-삶에 성찰을 주는 심리학, 제5장-삶의 지혜, 제6장-교육, 제7장-건강, 제8장-명상수련, 제9장-힘내고 삼시다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인든 사람이든 생존환경이 나빠질 때 후대를 남기려는 본능으로 인해 열악한 식물은 일찍 열매를 맺고, 사치마비의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성육을 느끼기도 한다. 건강이 나빠질 때 쉽게 음습한 생각이 스며든다.”며 책은 “이 책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고 생명에너지가 강해지면 불건전한 생각은 저절로 위축된다.”고 말한다. 또한 왕성한 신체활동이 마음의 건강을 돕기 때문에 걷기 등 신체활동이 왕성하지 않으면 정신도 같이 주저앉는다고 말한다. 책은 한담속에 다 읽고 덮을 책이 아니라 늘 곁에 두고 필요한 주제를 찾아 다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힐링백과 ‘사전’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살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희	마음의숲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생앤파크스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간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행복 119	성담	셀프컬처서치
8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9	길 없는 곳에서	덕일	작은숲
10	한마음과 대행선	혜선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틱낫한 스님의 마음정원 가꾸기

틱낫한·플럼빌리지 커뮤니티 지음
이수경·해주 스님 옮김 | 판미동 펴냄 | 1만5천원



“지혜와 통찰은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없다.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이미 그들 안에 심여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내면에 심여진 이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눈을 뜨고 싹을 틔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교사의 역할이다.” -틱낫한

틱낫한 스님과 스님이 머무는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 커뮤니티가 다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쉽고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가정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알아차림 명상을 가르치면서 틱낫한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책이다. 틱낫한 스님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온 일상의 알아차림을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알려주는 명상 안내서다.

알아차림 명상이란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외부를 향한 자각,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불교수행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어느 순간이든 깨어 있는 상태로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차를 마시면서 매 순간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알아차림 차 마시기이고, 걸음을 걸으면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알아차림 걷기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 수행은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걷기, 앉기, 일하기, 먹기, 말하기와 같이 평소와 항상 하는 일들을 한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책은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을 다스리고 평화와 이해, 자비심을 키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알아차림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에 만족감을 갖게 해 기쁨의 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책에는 약 서른 가지의 명상 활동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화 등이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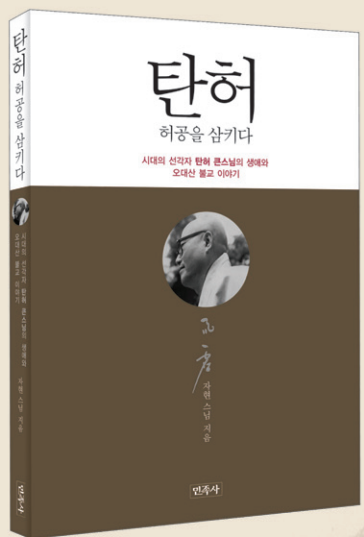
애하고 열정적인 틱낫한 스님이 아이들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재미있는 문답이 들어있다. 아가자기한 일 리스트와 책을 읽으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 등 다채로운 구성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나 부담 없이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정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책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여러 잠재 능력을 자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명상 활동을 교육 활동으로 도입하는 학교나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역시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상 활동은 우리 스스로 어려운 감정들을 보살피고 타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선물하고, 나아가 삶의 이치와 깨달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가족, 교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이 책이 소개하는 여러 명상법을 가르친다면, 그들 모두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른 이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원 기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 -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지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재물에 철저히 승가화와 대중화환에 투철한 열정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 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동명 063-02-109450 (예금주: 윤재승)